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미소를 머금었던 시간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사회공헌활동 '나눔상자 전달식'

지난 7월 11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하 센터 직원)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나눔상자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센터 직원들의 온기어린 행보를 따라가 보았다.

글 김일균 사진 이승현





온정 필요한 이웃에게 생활필수품 전해

아침부터 흐리던 날씨는 다행히 봉사활동을 앞두고 활짝 개었다. 노선호 부설의원장과 현정현 관리의사, 김병득 센터장 등 10여 명의 센터 직원들이 속속 모여들어 창원산업보건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나눔상자를 차에 실었다. 나눔상자를 각자의 이동 차량에 나눠 담은 직원들은 산호동 행정복지센터로 향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KIHA, 나눔상자 전달식’은 협회가 생활필수품과 의료용품(메디컬 박스)을 담은 나눔상자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다. 창원산업보건센터는 산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기초수급자, 저소득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상자를 전달했다.

행사에 앞서 산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 김선호 산호동장은 협회에서 전달받은 나눔상자를 앞에 두고 센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였다. 담소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분들에게 나눔상자를 전달했는데, 상자를 전해받은 이웃들이 카메라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짓자 동참한 이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기 시작했다.





골목 누비며 상자 전달, 번지는 미소는 덤

센터 직원들은 나눔상자를 전달하기 위해 창원시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기 시작했다. 밝게 웃으며 센터 직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상자를 전하는 이도, 전해받은 이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부부, 다문화가정,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이웃이 나눔상자를 건네 받으며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때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뿌듯한 웃음이 오갔다. 나눔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힘들어했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사실 창원산업보건센터는 봉사활동이 익숙하다. 봉사 동아리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따사모)’을 운영하며 연 2회 연탄 배달, 빨래 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봉사를 매개로 전염된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아름다워 보였다. 창원산업보건센터가 펼쳐갈 앞으로의 사회공헌활동이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



Mini Interview



노선호 부설의원장

“봉사로 습관입니다. 나눔을 통한 즐거움에 한 번 빠져들면 어느새 주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저는 40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덕에 보령의료봉사상도 수상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센터 직원들도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다들 재미있게 봉사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현정현 관리의사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일부분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가 끝나고 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감이 올라옵니다.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회장으로서 매년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 지 알기 때문입니다.”



김병덕 센터장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행복해집니다. 이웃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봉사로 사회에 온기를 전한다고 생각하니 보람됩니다.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더 폭 넓게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66 다양한 이웃이 나눔상자를
 건네받으며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때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뿌듯한 웃음이

오갔다. 나눔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힘들어했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99



외국인 노동자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구촌사랑나눔’으로 배달된 나눔상자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나눔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지구촌사랑나눔’을 찾아가
나눔상자와 식자재 등을 후원했다.

글 석수영 사진 최충식





외국인 노동자에게 희망 전할 나눔상자 후원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지구촌사랑나눔'. 이곳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다양한 교육·의료·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타국에서 겪는 생활고와 문화적 차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만큼, 협회는 그들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필품, 의료용품(메디컬박스)이 담긴 나눔상자와 소정의 식자재를 '지구촌사랑나눔'에 전달했다. 나눔상자는 조만간 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전해질 예정이다. 나눔상자 전달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김준연 회장과 임직원 3명이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했다. 사실 '지구촌사랑나눔'과 협회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지구촌사랑나눔'이 추진하는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후원금과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실행

김준연 회장은 '지구촌사랑나눔' 채수일 이사장과 악수를 나누며 "나눔상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사회의 온기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협회 임직원과 '지구촌사랑나눔' 관계자들이 나눔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사회공헌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협회는 앞으로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



66 나눔상자를 전해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슴에 온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관심받고 있다고 느낄 테니까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지구촌사랑나눔에 보내주는 꾸준한 관심, 정말 고맙습니다! 99

지구촌사랑나눔 채수일 이사장 (경동교회 담임목사)